

# 그런 일이 하나

2025 Notrdame Annual Magazine Vol. 94



K씨와 함께, 일상의 색을 더한 하루

# C CONTENTS

2025

## 여는 글

안녕! 노틀담 ..... 05

## 노틀담 포커스 人

· 새로운 시작, 삶의 지평을 넓히다.

마음길  
- 우리가 함께 걸어온 회복의 여정, 세 가지 길 ..... 08

내게 필요한 서비스,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 10

우리의 삶, 우리의 지도! ..... 13

· 따뜻한 울림, 마음을 잇는 우리들의 이야기

세상과 다시 이어진 순간 ..... 16

나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 18

필요한 순간 아주 작은 등불이 되기 위해 ..... 20

## 들이하나 2025. vol. 94

발행 월: 2026년 2월  
발행 인: 이선애  
발행 처: 노틀담복지관  
편집 인: 김승윤  
주소: 2104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전화: 032-542-3711~5  
팩스: 032-541-7377  
홈페이지: www.ntd.or.kr



·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는 내일

맘맘데이, 마음을 나누는 우리의 시간 ..... 24

요보스

- 함께 배우며, 성장 중인 우리의 이야기 ..... 26

노틀담 P.A.P한 사용설명서 ..... 29

애니메이트, 도전 속 피어난 우리의 이야기 ..... 31

자원봉사자 이야기

나만의 에너지 충전소, 긍정행동지원실 ..... 34

노틀담 솜씨

우리동네 사진작가 ..... 36

꿈지원 프로젝트 사진전 ..... 37

노틀담 희망나눔

2025년 후원금·품 사용 내역 ..... 40

행복후원 사랑실천 ..... 43

2025년  
노틀담은?



함께 걸어온 한 해를 담았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박건오님의 작품 '노들담'

# 여는글

To. 안녕! 노틀담

처음 만남날 나는 너희들이 신기했구

따뜻했어 지난날 나는 상처 받고 맘이 아팠었지

하지만 노틀담을 통해 많이 회복 되고

아픈 날 감사주던 선생님들을 만나 기댈 곳이 생겼어

오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구 있어

하지만 노틀담 식구들이 해내는 모습을 보며 나는 행복했어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게 화이팅!





# PART. 1



## 나의 삶, 나의 지도!



# 새로운 시작 삶의 지평을 넓히다.

\*지도 내 상징은 '한스피크'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 2025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신장애인지원사업 「마음길」

# 우리가 함께 걸어온 회복의 여정, 세 가지 길

글 : 능력개발팀 이다원

## 1. 당사자연구 :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탐구하는 길

동료들과 반원으로 둘러앉아 연구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정한 규칙 속에서 즐겁고 편안하게 각자의 일상과 고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같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은 동료들은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고 위로하며,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숨겨왔던 어려움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스스로 느끼던 의문과 혼란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기 이해와 성찰을 통해 정신건강의 어려움과 '나'를 분리해 바라보고, 관련된 행동 패턴을 확인하며 긍정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아봅니다.

## 2. 자조모임 :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

매주 모임에 참여하며 약속과 시간 감각을 되찾고, 사람들을 만나며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갑니다. 전문강사와 함께 글쓰기와 푸드테라피 활동으로 자기표현을 연습하고, 정기 회의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곳을 함께 논의하며 외부 활동을 결정합니다. 사람들과 평범하게 어울리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힘들거나,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감정이 폭발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잘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연습하고, 집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기여해 나갑니다.

## 3. 개인별지원 : 개인의 목표와 꿈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성장하는 과정

"꿈이 있나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요?" 누군가에게 당연한 질문이지만,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은 후에는 삶의 중심이 치료와 재활로 옮겨집니다.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증상 때문에 삶이 제한되지 않도록 생각을 전환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직접 계획하며, 학원·체육관·공방 등을 이용해 실천합니다.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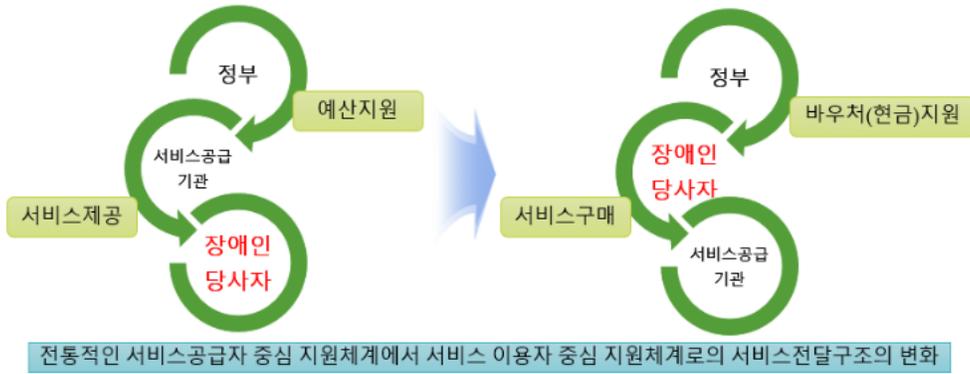
- 정부주도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복지전문기관 참여 후기

# 내게 필요한 서비스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글 : 능력개발팀 이태호, 아동발달팀 이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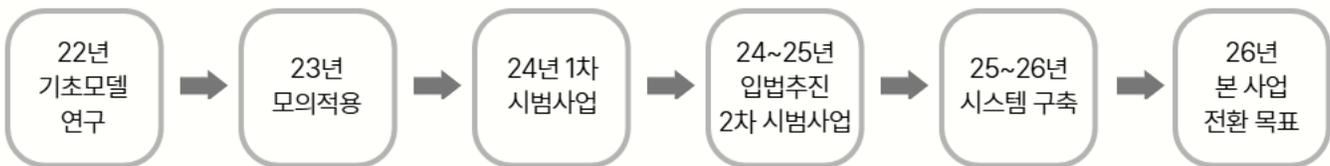
내게 필요한 서비스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서비스의 주체가 장애인 당사자가 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된다면 현재보다 더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되지 않을까요?  
개인예산제도는 이처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보장하여 자기주도형 서비스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핵심 원칙이며, 이와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 변화는 기관 중심의 표준화된 서비스 지원 방식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큼니다.



개인예산제도는 국가마다 시행 방식과 보장 범위가 차이가 있으나, 개인에게 책정된 예산의 사용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개별적인 예산을 할당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로 제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개인예산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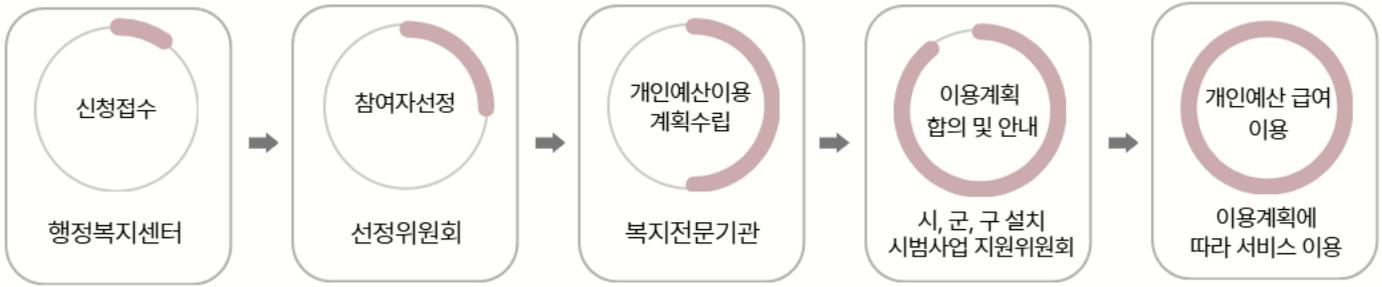


2025년도 2차 시범사업은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외에도 발달재활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영역이 포함되어, 이중 하나 이상을 수급 중인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참여자는 위에서 언급된 4가지 바우처의 총 급여액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다른 용도와 용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개인예산이용계획이 수립되고 합의가 된다면 장애인 당사자는 이용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일상생활, 건강 등 장애로 인해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예산이용계획의 수립 순서



·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목록표

서비스 목록	세부 내용
신체적 건강	건강증진,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용 소모품, 기타 건강지원 제품
정신적 건강	정신건강 증진, 검사/진단, 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정신적 건강지원 서비스 및 물품
주거	주택개조, 주거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물품
일상생활	일상생활 유지 / 돌봄지원, 일상생활 용품 지원, 이동지원, 기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일자리	직업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 및 훈련, 창업지원, 일자리관련 물품 지원, 기타 관련 서비스
보육 및 교육 (아동)	발달재활, 기타 보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 및 물품
법률 및 권익보장	법률 및 권익보장 (동행 상담, 법률 상담)
문화 및 여가	문화여가 활동 지원, 평생교육, 기타 문화 및 여가 지원 서비스 및 물품
바우처 유연화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 복수 바우처 수급 자격이 있다면, 한 서비스 일부 예산을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다른 서비스에 활용 하는것

인천시 계양구는 2차년도 시범사업 바우처 확대모델 유형으로 총 32명의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했으며, 노들담복지관은 '개인예산이용계획서'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성과 자기결정권 실현에 기반 될 수 있도록 수립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복지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및 조력자와의 면담 및 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모집단에 비하여 표본수가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개인예산제도가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선택과 자기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활동과 참여에 기여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시범사업의 긍정적 평가(참여자 및 보호자 공통의견)

- 의사결정, 계획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서비스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개인예산 이용 가능 서비스 범위의 유연성과 확장성
- 수급자격이 있지만 사정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바우처의 유연한 사용
- 경제적인 부담의 완화

· 참여자 사례

김O찬(초등학교 4학년, 자폐성 장애, 남)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O찬이는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하는 아동입니다.

평소에도 틈만 나면 다양한 캐릭터를 그리는 등 자신만의 미술 활동을 하며, '멋진 화가가 되고싶어요.' 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O찬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만의 공간에서 차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로 디지털 드로잉 기구를 구입하여 디지털 기반의 그리기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O찬이의 강점을 활용하여 미래의 꿈을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O찬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정O원(50세, 지체 장애, 남)

50대인 정O원님은 20대 중반 교통사고로 인해 중도에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한 재활치료와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 제한과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로 당당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O원님은 이번에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를 맞춤형 활동형 휠체어를 구입하여 운동할 때 좀 더 활동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패럴림픽에 선수로 출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정O원님이 훈련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합니다.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는 자기결정권의 실현, 각 바우처 서비스의 경직된 구조를 유연화하여 서비스 간 경계를 허물기, 사람중심·지역사회중심·강점기반의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가치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26년부터 전국 본 사업 확대를 목표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전달체계 정비, 예산 편성 기준의 마련 등 본 사업 전환에 완벽한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개인예산제도가 시범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사업으로 확대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더 유연하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복지 체계의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화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실현 기반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이 직접 만드는 '지역사회 자산맵핑' 프로젝트

# 우리의 삶, 우리의 지도!

글 : 노들담주간이용센터 주인목, 서현덕

발달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적응은 단순한 일상생활의 연장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간이용센터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이 거주지별로 소규모 조를 형성하고, 스스로 가고 싶은 장소를 선정하여 탐색한 후, 그 결과를 개인별 자산 지도로 구축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자들의 자립 생활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지원합니다.



## Step 1. 신중한 자치회의를 통한 장소 선정



활동의 첫걸음은 참여자들이 주도하는 자치회의입니다.

단순히 장소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왜 그곳에 가고 싶은지",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방문할 장소를 결정합니다.

카페, 공원, 도서관,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기 결정권과 주도성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번에는 여기로!' 가고 싶은 장소를 직접 결정하며 자기 결정권을 키우는 계산·박춘조 발달장애인들의 자치회의 모습



## Step 2.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적응활동



'지역사회 시설(도서관) 이용,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문화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신감을 얻는 실질적인 적응 활동 모습

자치회의에서 선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조원들과 함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결제하기, 길 찾기, 직원에게 문의하기, 대중교통 이용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을 안전한 환경에서 직접 연습합니다. 이곳에서 얻는 성공적인 경험과 자신감은 발달장애인분들의 사회 참여 의지를 크게 높여주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예전과 다르게 내 생각이 더 잘 전달 되는 것 같아 좋아요."

"친구들이 제 말을 들어주고 함께 도서관에 가서 좋았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을 갈 수 있는게 너무 좋아요."

"주말에 가족들이랑 함께 가보고 싶어요."



당사자 채송이님 지역사회 자산맵핑 활동에 관한 인터뷰 모습



### Step 3. 우리의 발자취를 담은 '자산맵핑'



'우리의 경험이 지도가 된다' 방문했던 장소의 이용 팁과 정보를 꼼꼼히 기록하여 소중한 '자산 지도'를 만드는 모습

활동을 마친 후, 조원들은 방문했던 장소의 정보를 정리하여 지도를 만듭니다.

이 지도는 단순한 위치 정보뿐 아니라, 이용 팁, 접근성 정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 개인의 경험과 유용한 정보가 녹아있는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이 지도는 향후 이들이 독립적으로 지역사회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며,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주체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나의 삶, 나의 지도' 당사자 채송이님의 자산지도

자산 맵핑이 발달장애인 자립에 중요한 이유는 '자기 결정권'과 '실제적 자산'의 획득입니다.

주간이용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참여자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결정하며 주체성을 높이고, 그 경험을 유형화된 지도로 만들어 앞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힘을 제공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내 상징은 '한스피크'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 PART. 2



따뜻한 울림,  
마음을 잇는 우리들의 이야기

늦 여름의 끝에서 시작된

# 세상과 다시 이어진 순간

글 : 긍정행동지원팀 김수정(마리 스콜라스티카 수녀)

K씨와의 첫 만남은 2024년 9월, 늦여름의 끝자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오랜 시간 외출을 거부하고, 집 안에 머물며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외출이 어려운 K씨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관에 오기'가 아니라 '그의 세계로 찾아가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정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채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고, 과도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밤과 새벽에 깨어 있고, 가정방문을 하는 시간에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K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옷을 입는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출을 위해서는 그 한 단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반복적인 착의 연습을 통해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집 안에서 옷을 입고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와의 면담, 그리고 K씨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K씨의 마음 안에 숨어 있는 작은 선호들을 발견하게 해 주었습니다.

## K씨가 좋아하는 것, 편안해하는 것, 마음을 열게 되는 순간들 ...

그 작은 단서들이 모여 어느 날, K씨와의 첫 외출이라는 기적 같은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년 만에 K씨가 복지관에 등관하는 날, 저는 조용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한 발은 단지 문을 나선 것이 아니라,  
K씨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한 소중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도 K씨에게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낯설고, 약물로 인한 무기력함과 망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새로운 취미활동을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 함께 살아가는 감각을 다시 배우고 있다는 것.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매일 K씨가 보여주는 용기를 보았습니다.



작은 변화들을 모아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과 다시 연결되어 가는 K씨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비로소 다시 서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K씨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K씨, 지금의 당신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그 용기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걸음을 믿고, 당신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세요.

저와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꿈지원 프로젝트

# 나의 꿈은 —♡ 요리사입니다.



나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작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은 꿈으로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께서 "25년도 꿈지원프로젝트"에 도전해 보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 한마디 덕분에 저는 신청할 수 있었고, 선정되면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 이제 제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비슷한 꿈이 있었어요.

삼촌이 운영하던 중식당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삼촌이 "자장면 배워보고 싶지 않냐?"라고 물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순간 '요리를 배우는 일,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마 이때부터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겨 있었나 봐요.



이왕 요리사의 꿈을 가진 만큼 제대로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보자' 라는 목표를 갖게 된 걸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내가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자꾸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니다.

요리를 배워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언젠가는 작은 식당도 차려 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로서, 내가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보람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요리사'라는 꿈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꿈을 꾸게 된 데에는 제 가장 큰 응원자, 아내의 영향이 컸습니다.

**"당신도 직접 한 번 만들어봐요."**

아내의 이 말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도전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죠.

이때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리를 배우고, 나중에는 취직도 하고 식당도 차려 보겠다는 더 확실한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도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교회 장로님은 시험 본다고 하자 기도해 주시겠다고 했고, 아내는 "열심히 배워서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줘요."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어요. 이런 말들이 저를 더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제가 꿈꾸는 미래를 상상해 보면,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을 열심히 이끄는 저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 종업원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대접하는 장면이지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 '아,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흐뭇하고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 지금 저는 집안일을 도우면서 틈날 때마다 공부하고 있어요. 방 안에서 혼자 책을 읽고, 공책에 필요한 내용을 적으며 익히다 보면 1~2시간은 훌쩍 지나죠. 처음에는 어려운 단어도 많고,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쓰고 읽다 보니 재미가 생겼고, 어릴 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특히 선생님이 도와주시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해주셨던 순간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 응원의 말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고, 올해 처음으로 '나도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고맙고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쓴 만큼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빠가 해냈다!", "정말 수고 많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앞으로도 꾸준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자신이 있어요.

지금 작은 걸음을 걷고 있지만, 이 걸음들이 쌓여 언젠가 내가 꿈꾸던 요리사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나의 꿈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틀담복지관에서 김구현님과 만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늘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지금의 꿈을 향한 노력에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김구현님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차분히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어렵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조용히 질문하고, 이해 되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공부로 돌아갔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꿈을 향한 진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말, 나중에 취업하거나 식당을 차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말에는 김구현 님의 진심이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요리를 배우려는 이유가 단순히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음, 아버지로서 책임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음식을 나누고 싶은 따뜻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꾸준함이라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처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옆에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글 : 능력개발팀 박예원

# 필요한 순간 아주 작은 등불이 되기 위해

글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안현지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담복지관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차 보조공학사입니다.

“복지관 직원들은 보통 사회복지사 아닌가?”, “보조공학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올해 노들담복지관의 연간 매거진 <둘이하나>를 통해, 저의 하루를 살짝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기기센터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고, 그중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는 여덟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다섯 명의 보조공학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상담부터 기기 적용, 대여, 수리까지 보조기기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 할 때 찾아오시는 곳이에요.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신체 기능이나 생활 환경은 모두 다르기에, 각자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동휠체어 세척 서비스를 이용하러 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타고 다니시는 전동휠체어의 세척이 끝난 뒤, 오래 사용해 남아버린 팔걸이 패드의 교체가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요. 동일한 제품은 없었지만, 센터에 보관 중이던 여분 패드 중 호환되는 제품을 찾아 양쪽 모두 새것처럼 교체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이용자분 혼자 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더욱 보람이 컸습니다.

작은 정비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에 편안함을 더한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늘 큰 힘이 됩니다.



오후에는 기기 대여를 위해 또 다른 이용자분을 만나러 가정으로 방문했습니다.

올해 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을 신청하시며 저희와 처음 인연이 닿았던 분이었어요.

독립적인 식사를 위한 식사 보조기기를 신청하셨지만 상담 과정에서 가정에서 꾸준히 재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바람과 맞는 기기를 대여해드리기 위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 두었던 분이셨습니다.

애타게 기다리신지 몇 달 만에 드디어 순번이 되어 기기를 전달드리게 되었습니다.

입원 중 재활치료는 하셨지만 이 기기의 사용은 처음이라 전원 연결부터 사용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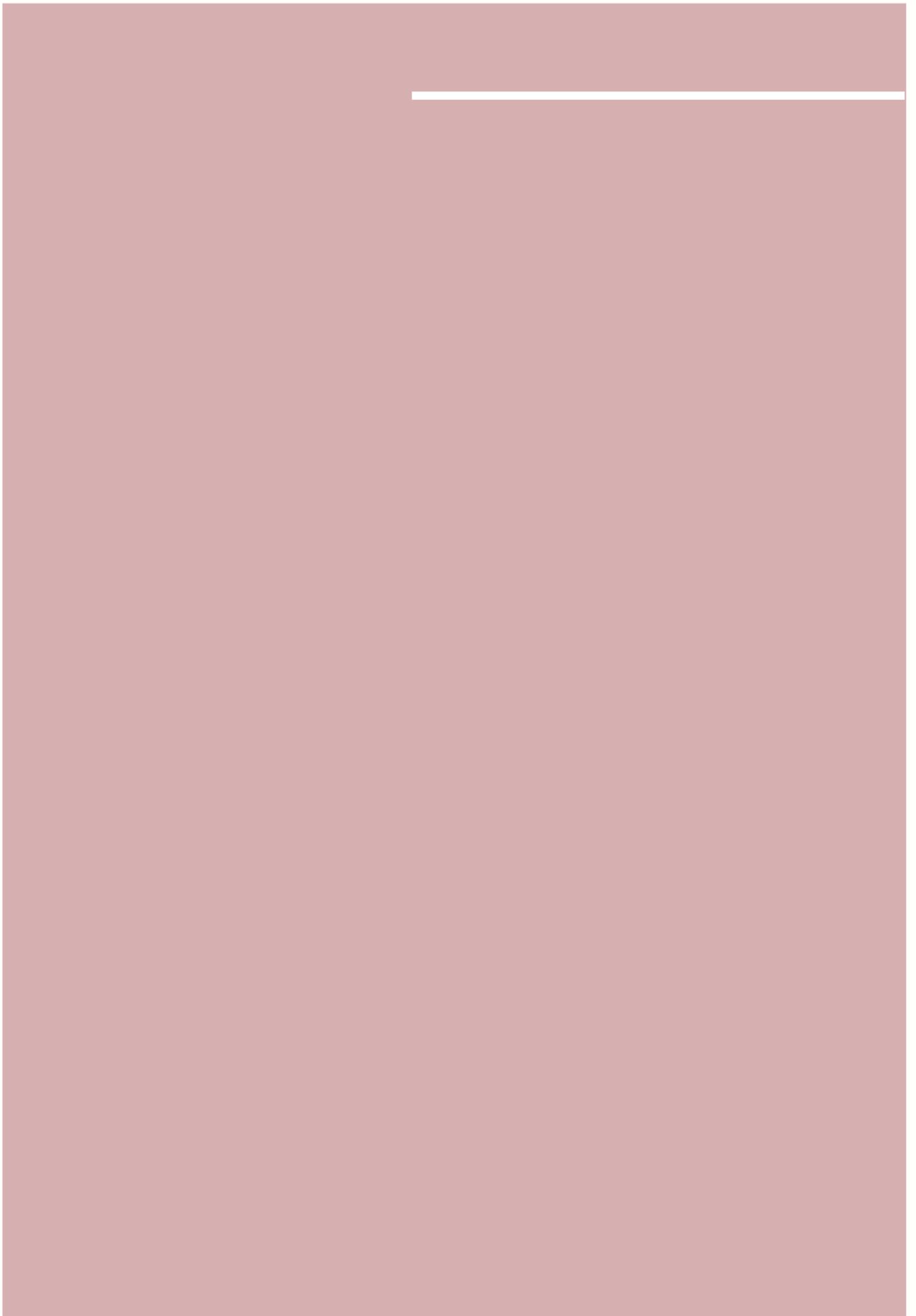
그 이후 실제로 보조기기를 적용하며 통증이나 불편함은 없는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빠르지는 않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기때 자주 앉아 계시는 식탁 의자에서부터의 동선을 고려해 기기 위치를 잡았고, 보호자분과 함께 교육과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비록 빠르지 않은 속도지만, 꾸준한 보조기기의 사용이 신체 기능 저하를 막고 조금 더 넓은 일상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의 제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밝히기 위해 매 순간 진심을 다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보조공학사는 한 사람에게 특정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보조기기의 다각적인 활용을 통해 자연스러운 힘을 보태는 사람들입니다.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와 상관없이,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PART. 3



함께 꿈꾸고,  
만들어 가는 내일

아동발달팀 부모 자조모임

# '맘맘데이' 마음을 나누는 우리의 시간

글 : 아동발달팀 도연, 민준 엄마

## 모임의 시작

3년 전, 맘맘데이의 첫 만남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석고 손 본뜨기로 고생한 나의 손을 위로하고,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던 짧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하나둘 쌓이며 우리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대화는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그렇게 맘맘데이는 친구이자 포근한 쉼표가 되어주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 활동 이야기 & 소소한 에피소드

올해도 맘맘데이는 숲 체험, 도마 만들기, 꽃꽂이, 뜨개질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날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편안하게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지요.

이러한 소소한 활동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었고, 작은 시도를 통해 한 걸음씩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자조모임을 통해 복지관 두루미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처음에는 망설였던 마음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는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기다렸어요~"라며 반갑게 맞아주시고,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를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 덕분에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함께한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는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했습니다.



## 👪 엄마들의 이야기



이곳에서 진짜 제 얘기를 꺼낼 수 있었어요.

사실 어디 가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부담 없이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남편도 잘 몰랐던 제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같이 느껴주고,  
공감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큰 힘이 되었어요.

엄마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임이 주는 의미와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 우리의 바람

“우리 영원하자!” 라는 다짐보다, “앞으로도 꾸준히 보자~” 라는 인사가 더 마음에 닿았습니다.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며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따뜻한 만남이 아이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로 전해져, 사랑과 믿음으로 자라나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마지막으로



사실 이 길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 처음 복지관을 찾았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어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걷는 엄마들을 만나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고, 무엇보다 내 아이를 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맘맘데이를 통해 '나 혼자 아니구나'라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어느새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심을 나눠주신 부모님들과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지금처럼 서로의 곁에서 웃음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행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 함께 배우며, 성장중인 우리의 이야기

글 : 직업개발팀 주우형

요양원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을 들어보셨나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이란?

발달장애인들이 실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도와 어르신들의 정신적·신체적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입니다.

미래에 멋진 요양보호사가 될 저희를 소개합니다! 😊

황동건(과제장) 📝



손수빈(총무) 📅



김지민(회장) 👑



김소연(부회장) 🌟



문은정(스케줄장) 📅



정호민(모임원) 👍



이승호(모임원) 👍



이종민(모임원) 👍



어진영(모임원) 👍



“요.보.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스터디 자조모임

참여자들이 원하는 건 ‘다 함께’, ‘전문성 향상’, ‘모임’이었습니다.

키워드를 모아 결성된 “요.보.스” 자조모임!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만나 요양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고,

요양보호사를 주제로 공부하며,

함께 성장하는 “요.보.스”를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보스 자조모임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양원에서 일하며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모르는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모임에 참여하면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을 하면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었어요.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복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모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어요.



요보스 자조모임은 여러분이 스스로 운영하시는 자조모임이라 들었어요!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 계양도서관에서 만나 3시간 동안 스터디그룹을 하고 있어요.  
1시간은 어려움을 나누고, 1시간은 공부시간, 나머지 1시간은 다음 모임에 진행할 과제를 정하고 헤어져요.



참여하시면서 갖게 된 목표나 되고싶은 미래의 요양보호사의 모습이 있을까요?

- 지민 : 모임을 통해 지금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요.  
나중에는 어르신들에게 친근한 요양보호사가 되는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소연 : 모임에 참여하면서 모임과 직장에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간 어르신들이 저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되고싶어요!
- 수빈 : 어르신들과 조금 더 친근해져 나중에는 귀여움을 받고, 친절한 요양보호사가 되고싶어요!
- 동건 : 착하고 성실한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 은정 : 모임에 참여하며 이 일을 계속할지, 다른일을 할지 아직 모르지만,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싶어요.  
만약, 나중에 요양보호사가 된다면 어르신들과 많이 얘기하고 웃음을 드리고 싶어요.
- 종민 : 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 일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어르신들에게 친근한 요양보호사가 되고싶습니다.
- 호민 : 저는 요양원에서 일 하는게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이 배우고, 오래 일 하고 싶어요!
- 진영 :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제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즐겁게 하고싶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요양보호사가 되는게 제 꿈입니다!
- 승호 : 저는 그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하느라 별도로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번년도에는 모임을 다니며 꼭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고요. 나중에는 어르신들을 위해 웃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되고싶습니다.



 매달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함께 모였을 때 기억나는 재미난 일이 있으실까요??

담당자이신 우형샘이 서프라이즈로 온 상황이 기억나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혹시 오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모두가 함께 급히 공부하는 척을 했던게 너무 재밌었어요.  
연기하는 상황이 어색했지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마지막으로 현재 영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영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현재 영양보호사 보조를 진행하며 변화된 모습과 자격증 취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자격증을 따기 전까지는 이 직업을 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는 어르신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배웠으니, 그분들이 하시는 행동에 대한 이해도 하게되고, 더 잘 지원할 방법을 고민해본거 같아요. 또 더 열심히 말 벗을 해드려야 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음...  
모두 함께 화이팅해서 언젠가는, 모두가 다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어! 그때까지 화이팅!



### 함께여서 가능했던 우리의 시작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 해보는 자조모임으로 시행착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는 게 좋기도 하고 싫을 때도 있는 주제지만, 함께라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로 시작된 자조모임이 이제는 참여자들의 삶 속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요.보.스"의 무궁무진한 성장을 기대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기술에 온기를 채우다.

# 노들담 P.A.P한 설명서

글 : 나눔연계팀 유병용

## [STEP 1] 차가운 지능이 따뜻한 마음을 두드리다.

노들담복지관과 AI의 만남은 낯설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시라는 차가운 지능을 가진 기술이 급부상하였고, AI를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따뜻한 기술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나눔연계팀의 팀학습이었습니다.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곧 '어떤 시가 노들담의 가치와 철학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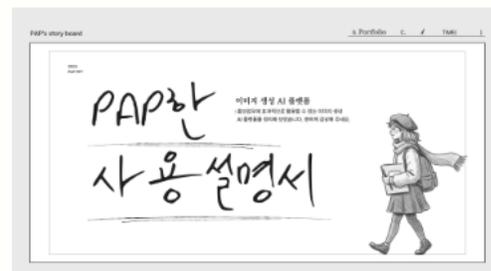
이 작은 호기심이 복지관 전체의 관심을 깨우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생소한 이름의 시플랫폼과 마주하며 첫걸음을 뗀던 시간은 단순한 도구 습득을 넘어, 노들담의 가치와 철학을 '시'라는 새로운 언어로 번역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 [STEP 2] AI, 복지의 언어로 숨쉬다.

2월~6월, 매월 첫째날, 노들담복지관 전체직원회의 시간에 'P.A.P(Practical AI Platform)한 사용설명서'라는 이름의 전달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플랫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 2월 : 방대한 데이터를 요약을 통해 서류작업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AI를 소개하였습니다. 줄어든 시간만큼 이용자분들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여유가 생기기를 바랬습니다.
- 3월~4월 : 텍스트를 마인드맵과 이미지 등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복잡한 정보들을 그림과 표로 친절하게 바꾸어 이용자분들께 정보들을 그림과 표로 친절하게 바꾸어 이용자분들께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학습하였습니다.
- 5월 : 텍스트와 음성을 상호변환하는 AI를 만났습니다. 듣는 것이 불편한 분들께서는 명확한 글자를, 읽는 것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다정한 목소리를 전하여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6월 : 창작의 즐거움만큼 중요한 '윤리'를 배웠습니다.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활용법을 학습하고, 책임감 있는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며 교육의 여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STEP 3] AI와 함께 그리는 새로운 풍경

AI 활용 교육의 씨앗은 현장 곳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베트남 노틀담수녀회 방문 당시, 가상 인물 'Justin'의 모습과 목소리를 AI로 구현해 유창한 영어로 기관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전체교육 영상을 제작할 때, AI 이미지 생성 기술을 활용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 편의 이야기로 생동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지역문화행사 지구지킴이 이벤트에서 구글 앱 스크립트와 AI를 활용하여 '디지털 스탬프북'을 직접 제작해, 종이 없는 지구지킴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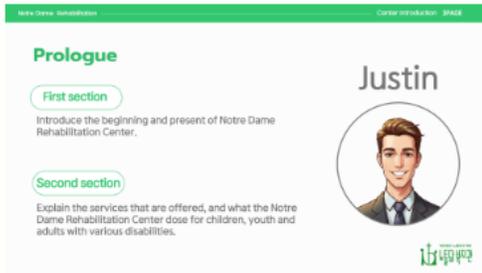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기술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STEP 4] 2026년, 사람을 향한 기술로 더 멀리

2026년 노틀담복지관은 이제 더 먼 곳을 바라봅니다. 단순한 활용을 넘어 AI와 함께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각 팀의 AI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모여 AI 스터디 모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을 탐구하고 현장에 적용하며, 우리의 전문성을 더 높여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을 단 하나의 원칙은 '이용자를 향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기술자가 아닌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이용자분들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온기가 담긴 기술'을 계속하여 익히고 실천하겠습니다.



# 애니메이트

## 도전 속에서 피어난 우리의 이야기

글 : 직업개발팀 손다혜



설렘을 담아, 태블릿과의 첫 만남

### 새로운 기술, 새로운 마음, 프로그램의 시작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기술은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직업개발팀은 훈련생들이 기술을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디지털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팀워크·소통능력·성취감·자신감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모여 애니메이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AI를 참고해 나만의 색으로 다시 그린다

### 하루하루가 쌓인 작은 도전

내가 그린 그림이 화면 속에서 움직이고 이야기가 살아나는 '디지털 창작'과 처음 마주한 순간, 참여자들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다"**는 용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표정을 그리고, 동작을 그려보며, 태블릿 위에서 하나하나 그리는 작은 움직임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래를 직접 만들기 위해 팀단위로 진행되는 제작활동 속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협력과 소통을 경험했습니다.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성장하는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만드는 디지털 창작의 순간

### 마음이 말하는 성장: 참여자 인터뷰

Q. 처음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문O정: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는게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해보니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제일 좋았어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김O혜: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가사를 만들고, 뮤직툰으로 음악이 나왔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상상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Q. 프로그램 후 달라진 점은요?

조O지: "예전엔 새로운 걸 많이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조금 자신 있어요. 여러 가지 어플에도 관심이 생겨서 일레븐랩스로 AI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보고, CAVA어플로 '나'와'직업적응훈련반'을 소개해봤어요."



서로의 의견이 하나되어 만들어지는 작품

### 프로그램 후에도 멈추지 않은 발걸음

훈련생들은 누구의 요청도 아닌, 스스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기술에 흥미를 느낀 후에는, AI 음성 앱을 활용해 자기소개를 만들어보거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좋아하는 장면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어플리케이션을 자발적으로 탐색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창'이 되었습니다.



1  
직업적응훈련반  
'빛나는 하모니' 바로보기

### 앞으로도 디지털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확장하는 우리

애니메이트 프로그램은 단지 새 기술을 배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작은 씨앗이 우리 훈련생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점입니다. 그 씨앗은 지금도 조용히 자라 훈련생들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들의 가능성이 더 넓은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올해 피어난 이 특별한 변화가 내년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지 기대해 주세요.

\* 이 프로그램은 2025년 취약계층(지역)중심 인천시민대학 계양구캠퍼스 운영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자원봉사자 이야기



나만의 에너지 충전소,  
긍정행동지원실

글 : 자원봉사자 최철현

**Q.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

제가 처음 복지관을 가게 된 건 사회복지무원으로 긍정행동지원팀에 배치가 된 때였습니다. 그 시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도우며 이용자분들이 조금씩 밝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정성과 진심을 다해 마음을 전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특별하고, 따뜻한 경험을 했습니다. 소집해제 이후에도 그 따뜻한 경험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용자분들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자원봉사 활동을 추천해주셨고, 그때부터 저는 다시 이용자분들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사회복무요원 시절엔 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도우며 이용자분들의 변화를 지켜본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물론 그때도 충분히 보람이 있고 행복했죠.. 하지만 자원봉사자로 다시 오게 되었을 땐 이용자분들과 직접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 훨씬 깊게 제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취미 이야기를 나누며 이용자분들과 함께 행복과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이 단순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행복하단걸 알게 되었달까요..? 하하

**Q. 긍정행동지원실에서 지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

원예활동 시간에 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용자분과 함께 꽃꽂이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이 노래를 이용자분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 자연스럽게 "OO씨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OO씨, 혹시 이 노래도 아시나요?" 등 여러 질문을 하고, 서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꽃을 꽂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꽃을 꽂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성했고, 그때 완성한 꽃꽂이는 제가 사회복지무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봤던 작품 중 가장 예뻐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건 스포츠 동아리 활동 때 진행한 미니올림픽입니다. 이용자분들과 함께 달리고, 응원하던 그 순간들, 이용자분들의 열정과 웃음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정말 잘 준비했구나..'라는 뿌듯함이 가슴한켠에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Q. 자원봉사자님께 긍정행동지원실이란 어떤 공간인가요 ?**

저에게 긍정행동지원실이란, '에너지 충전소'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하루 동안 세 번의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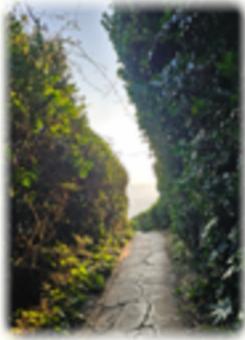
- 첫 번째 에너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생기는 활력 에너지!
- 두 번째 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분들을 보며 얻는 기쁨 에너지!
- 세 번째 에너지! 이용자분들과 함께 웃고,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따스한 에너지!

작은 순간에도 함께 웃고 즐기며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이 공간이, 사회복지무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꼭 긍정행동실을 찾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 노틀담 송씨



지역사랑팀 자조모임 '우리동네 사진작가' 작품



지역사랑팀

# 우리동네 사진작가

'우리동네 사진작가'는 사진을 사랑하는 9명의 회원들이 모여 사진을 통해 소통하고 관계를 쌓기위해 형성된 자조모임입니다. 촬영기법을 배워 복지관이나 야외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 후 함께 감상하며 서로의 작품을 보고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 당사자들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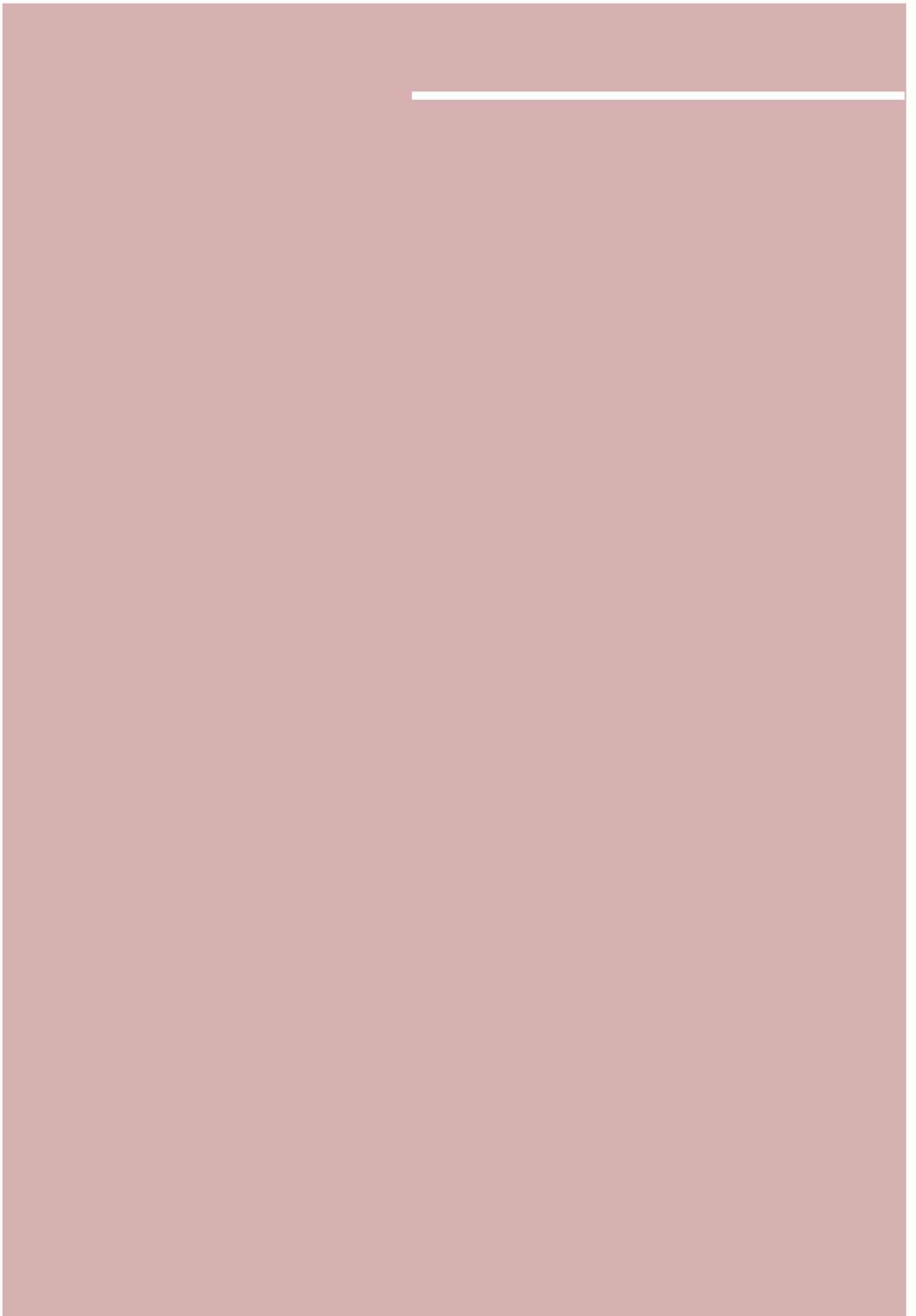
능력개발팀 꿈지원 프로젝트 참여자 장민경님

# 조그마한 프레임에 담은 나의 꿈



2025년 2월, 장민경씨는 멋진 사진기록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꿈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습니다. 렌즈 속 작은 프레임으로 풍경을 담고, 사람을 기록하며, 하루하루의 시선은 한 권의 사진 앨범으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사진 앨범은 11월, 전시를 통해 관객과 만났습니다.

이번 연간매거진 <둘이하나>에서는 장민경씨의 사진 앨범 속 몇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PART. 4



## 노들담 희망나눔

# 2025년 후원금·품 사용내역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나눔, 가치있는 삶을 실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 복지관 후원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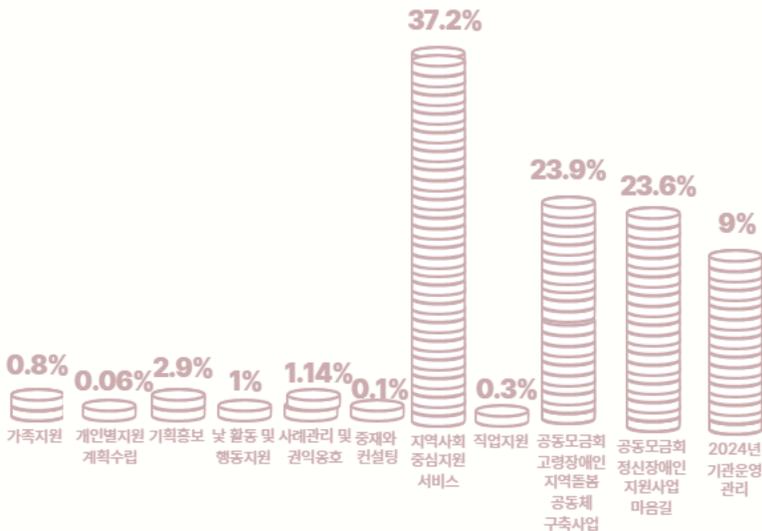
**410,712,912원**



일반(비지정) 후원금	123,790,781원
지정후원금	55,691,457원
공동모금회지정후원금	174,871,751원
2024 이월후원금	56,358,923원

지출

**306,386,364원**



가족지원	2,454,600원
개인별지원계획수립	213,390원
기획홍보	9,112,279원
낮 활동 및 행동지원	3,118,650원
사례관리 및 권익옹호	3,483,260원
중재와컨설팅	406,650원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113,881,415원
직업지원	952,080원
공동모금회 고령장애인 지역돌봄공동체 구축사업	73,207,560원
공동모금회 정신장애인 지원사업 마음길	27,694,080원
기관운영관리	71,862,400원

\* 이 외에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 낮활동 및 행동지원 등 지정·비지정 사업을 위해 **104,326,548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부된 후원물품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저소득가정의 지원으로 소중히 사용되었습니다.

## 복지관 후원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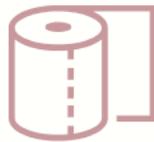
수입

**6,413개**

- 참여후원자 43명(곳)
- 후원 횟수 169회



전자제품  
**20개**



생필품  
**489개**



잡화  
**204개**



식품  
**4,522개**



의류  
**955개**



기타  
**223개**

나눔

**6,785개**



재가장애인 및  
이용자 전달  
**2,383개**



행사사용  
**2,986개**



기관사용  
**1,416개**

- 식당지원 236개
- 베이킹 프로그램 및 베이커리 지원 120개
- 프로그램 지원 86개
- 기타 974개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나눔, 가치있는 삶을 실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 별도시설 후원금

### 노틀담 주간이용센터

수입	
계	9,895,339원
이월금	2,922,197원
비지정후원	6,973,142원
지정후원	0원

지출	
계	9,895,339원
사업비	6,596,160원
운영비	1,085,620원
이월금	2,213,559원

### 노틀담 베이커리

수입	
계	10,992,936원
이월금	2,467,574원
비지정후원	5,845,006원
지정후원	2,680,356원

지출	
계	10,992,936원
사업비	2,694,390원
운영비	2,562,310원
인건비	1,493,388원
차년도이월금	4,242,848원

# 지역 안에서 이어지는 작은 순환

키즈프라이미치과 원장 김수영

## Q. 노들담과의 첫 만남은?

치과에 내원한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를 진행하던 중, 어머니가 아이를 다독이며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치료 잘 받고, 노들담 가자."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치료 과정에 비교적 잘 협조했고,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고, 자연스럽게 궁금해졌습니다. "노들담은 아이에게 어떤 곳이기에 이런 힘이 될까?" 그날 이후, 저는 노들담에 직접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 Q. 후원하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다면?

치과를 찾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고 싶어, 대학생 조카가 밤을 새워 수제 비즈 팔찌를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필요해졌을 때, 복지관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작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팔찌 만들기는 장애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활동의 기회가 되었고, 참여한 분들 역시 누군가를 위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팔찌와 함께, 제가 보낸 피자도 작은 파티도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뒤, 한 분이 직접 찾아와 즐겁게 만들었다며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네셨고, 그 순간, **지역 안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이어진 참 고마운 나눔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Q. 후원을 통해 만들고 싶은 사회적 변화나 바람은?

후원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기보다,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인 대구에서 올라온 제가 계양에서 일터를 꾸리고,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안정된 삶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지역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환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사회적 성장을 돕는 노들담복지관과 같은 기관이 연결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참 뜻깊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마음과 흐름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Q. 노들담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모든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 경북대 레지던트 시절, 특수학교에 구강검진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춰 차분히 기다리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끝까지 지원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일의 무게를 넘어, 모든 일상을 함께하며 돌봄을 사명이자 삶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태도에 자연스럽게 존경과 뜨겁고 몽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종사자분들이 지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소명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 어린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 행복후원 사랑실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한 실천을 함께 이어갑니다. (히브 10:24 인용)

노들담복지관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CMS 후원

강○실 강○진 강○호 강○영 강○형 강○화 강○도 고○영 고○주 고○이 고○호 고○옥 고○진 곽○선 권○현 권○성 권○영 권○준 권○준  
김 ○ 김 ○ 김○영 김○목 김○미 김○숙 김○옥 김○아 김○현 김○용 김○길 김○경 김○영 김○섭 김○영 김○민 김○옥 김○린 김○식  
김○자 김○수 김○수 김○진 김○득 김○석 김○수 김○엽 김○희 김○수 김○유 김○민 김○수 김○현 김○훈 김○애 김○하 김○균 김○림  
김○나 김○정 김○동 김○련 김○진 김○선 나○기 노○현 노○은 노○은 류○이 박○규 박○주 박○희 박○선 박○영 박○정 박○영 박○영  
박○후 박○규 박○석 박○순 박○하 박○례 박○주 박○홍 박○철 박○연 박○혁 박○만 박○숙 박○환 박○순 박○섭 박○림 박○선 박○주  
박○석 배○순 배○숙 백○명 서○재 서○숙 서○현 선○규 성○임 소○현 손○경 송○만 송○우 송○운 신○숙 신○철 신○정 신○숙 안○찬  
안○곤 안○형 안○덕 안○정 엄○범 예○경 오○진 오○례 오○숙 오○석 오○옥 오○정 오○연 온○훈 원○을 유○준 유○자 유○수 유○숙  
유○란 유○진 윤○희 윤○진 윤○애 윤○섭 윤○경 윤○술 윤○미 윤○섭 이 ○ 이○현 이○재 이○정 이○원 이○희 이○원 이○수 이○옥  
이○란 이○심 이○영 이○영 이○우 이○곤 이○영 이○규 이○찬 이○숙 이○재 이○은 이○갑 이○기 이○숙 이○아 이○린 이○옥 이○주  
이○환 이○민 이○하 이○웅 이○범 이○진 이○희 이○호 이○늘 이○자 이○찬 이○상 임○옥 임○현 임○희 장○순 장○현 장○미 장○희  
장○화 장○아 장○순 장○주 장○희 장○규 전○환 전○학 전○구 전○준 전○정 전○서 전○연 전○영 정○은 정○영 정○옥 정○훈 정○규  
정○미 정○지 정○영 정○영 정○순 정○호 정○경 조○환 조○경 조○경 조○숙 조○아 조○형 조○옥 조○미 조○원 조○형 주○현 진○신  
진○현 차○숙 차○호 천○자 천○연 천○성 천○숙 최○수 최○연 최○운 최○주 최○용 최○학 최○선 최○희 최○협 최○인 최○국 최○선  
최○석 최○분 최○옥 최○락 최○옥 최○광 한○람 한○희 한○영 한○자 함○영 허○행 허○제 허○호 홍○표 홍○호 홍○호 홍○자 홍○환  
홍○기 황○성

(주)철○인터내셔널 (주)케○디스틸 가○멜수도회 딸○어린이집 로○텍 명○자동차공업사 명○축산도매센타 반○이불 쌍○이방앗간  
예○의료기 장○두부 정○할인마트 제○엔씨동물병원 커○에반하다 키○프라임치과

## 자동이체 및 방문 후원

강○현 강○다 강○훈 고○종 권○훈 김○완 김○울 김○진 김○향 김○국 김○호 김○현 김○현 김○옥 김○준 김○경 김○형 김○옥 김○훈  
김○인 김○규 김○무 김○성 김○태 김○중 김○숙 나○원 남○혜 남○인 노○환 노○규 문○인 문○수 민○왕 박○남 박○진 박○수 박○선  
박○정 박○찬 배○남 배○광 배○호 서○솜 서○준 서○비 서○현 성○수 송○진 신○옥 심○혁 안○옥 안○지 양○필 양○진 양○옥 양○옥  
어○희 예○경 오○호 오○원 유○민 유○형 윤○근 윤○권 윤○유 이○옥 이○근 이○수 이○명 이○영 이○영 이○옥 이○달 이○호 이○현  
이○배 이○우 이○안 이○건 이○윤 이○선 이○우 이○주 이○라 인○홍 임○심 장○호 장○형 장○재 전○길 전○환 전○옥 정 ○ 정○섭  
정○희 정○호 정○영 정○옥 조○원 지○호 천○희 최 ○ 최○립 최○숙 최○옥 최○호 최○락 하○진 하○이 한○람 한○영 한○순 허○행  
허○형 허○자 허○강 허○진 홍○민

(주)레○토 (주)에○텍엔지니어링 (주)제○케이글로벌 DO스크린골프 계○2동주민자치회 계○산전통시장나눔여성회 국○은행계양지점  
기○은행계산역점 대○조경 도○기업 서○엔지니어링 에○이마스터 인○교구장애인연합회 인○교통공사 인○종합에너지  
지○한마을재단코리아 케○엠테크 코 ○ 하○정보통신 한○순교성인성당 한○전기안전공사 한○지엠빈첸시오회 한○플라워

## 모금함 후원

쿨○을계양점 김○하의닭갈비 김○춘 닥○ 도○손흑두부 등○샤브칼국수 룩○부르크 선○의원 신○계약국 안○지식인 옥○관 왕○숯불갈비  
원○추어탕 원○머니보쌈 이○뜸감자탕계양구청 정○할인마트 코○호도작전점 훈○골

## 물품 후원

KO (주)레오토 (주)미오미 (주)와오디아이 (주)용오 (주)제오케이글로벌 경오교육대학교 계오우체국 고오원약국 구오영  
국오연금공단 부오계양지사 국오은행계양지점 김오석 대오제분(주)인천지점 백오장수순대 백오은 사오적협동조합일원 산오로협동조합  
삼오당한의원 안오지식인 왓오아지매 이오명 이오 이오떡집 인오교통공사 인오안남로터리클럽 정오할인마트 중오기업중앙회인천지역본부  
지오한마음재단코리아 참오은두레생협 코오스케미칼 피오햇부평본점 하오기업 한오조지메이슨대학교 한오병원 한오플라워 함오희

## 노들담 주간이용센터

강오수 강오구 김오숙 김오진 김오정 김오영 김오숙 김오현 김오원 박오현 박오현 박오근 서오규 서오덕 서오희 안오일 엄오재 용오우 원오숙 유오재  
윤오정 이오이 이오도 이오른 이오늘 이오재 이오주 임오숙 전오식 정오령 주오목 최오화 최오원 최오애 한오늘 현오주 홍오숙 황오희 (주)청오엔지

## 노들담 베이커리

강오숙 김오호 김오수 김오희 김오우 김오진 김오누리 김오수 김오호 맹오호 박오영 박오애 박오근 박오연 백오운 송오현 양오빈 예오경 우오하 유오철  
윤오등 윤오대 윤오경 이오하 이오찬 이오찬 이오현 이오민 이오규 임오민 정오이 정오규 조오아 조오래 주오연 최오혁 한오동 한오연 허오영 홍오희  
황오현 이오승 홍오표 안오식 유오연 함오철 성오디비 나오이엔씨 호오식품 박오여고 모금함

##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원봉사자)

## 노들담복지관

강오자 강오원 강오영 강오찬 고오심 공오임 구오순 권오희 권오경 권오택 권오준 권오숙 김오식 김오화 김오현 김오희 김오수 김오례 김오준김오희  
김오라 김오래 김오중 김오희 김오례 김오자 김오남 김오진 김오희 김오미 김오지 김오복 김오숙 김오임 김 오 김오섭 김오기 김오숙 김오태 김오화  
김오희 김오숙김오주 김오자 김오용 나오희나오섭 나오숙 노오민 노오규 류오자 민오숙 박오연 박오숙 박오실 박오옥 박오보 박오옥 박오현 박오규  
박오빈 박오중 박오현박오희 박오옥 박오민 박오숙 박오혁 박오열 박오호 박오미 박오은 박오훈 박오호 박오근 박오정 방오선 배오순 배오순 배오주  
백오분 백오학 백오화 서오원 서오태 서오희 서오월 서오세 서오란 서오진 서오림 소오진 손오진 손오연 손오옥 송오미 송오덕 신오연 신오덕 신오옥  
신오숙 신오순 안오화 안오섭 안오석 양오자 양오이 양오혜 오오들레 오오배 우오하 우오영 원오미 유오종 유오형 유오석 유오형 윤오미 윤오준 윤오유  
윤오림 윤오수 이오석 이오선 이오옥 이오희 이오진 이오현 이오우 이오주 이오숙 이오애 이오미 이오녀 이오남 이오택 이오옥 이오은 이오현 이오석  
이오연 이오섭 이오희 이오미 이오희 이오자 이오선 이오민 이오숙 이오애 이오순 이오민 이오우 이오연 이오윤 이오진 이오경 이오은 이오미 이오정  
이오지 이오철 이오옥 임오실 임오운 임오현 임오희 임오선 장오경 장오희 장오재 장오륜 장오건 전오순 전오옥 전오길 전오희 전오옥 전오선 전오란  
정오용 정오권 정오희 정오진 정 오 정오지 징오지 정오식 정오영 조오윤 조오남 조오식 조오재 조오숙 차오환 천오옥 최오선 최오정 최오숙 최오희  
최오필 최오호 최오현 최오림 하오숙 하오덕 하오순 한오순 허오희 허오영 허오진 현오영 홍오표 홍오민 홍오선 홍오혜 홍오금 황오선 황오화 황오주

## 노들담 주간이용센터

김오숙 김오숙 김오오 김 오 김오자 김오미 민오진 박오정 박오숙 서오은 서오영 예오경 이오연 정오순 정오숙 채오숙

## 2025년 후원 및 자원봉사로 노들담복지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분들의 선한 의지와 실천은 장애인 당사자가  
꿈꾸고 희망하는 '보통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들담복지관은 인간존중과 사랑의 실천으로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들담복지관 '후원신청'  
바코가기



노들담복지관 '자원봉사신청'  
바코가기